

안녕하세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장석운입니다.

1. 흔히 호남의 3대 산성이라 일컬어지는 입암산성은 사적 제38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 장성과 전라북도 정읍의 경계에 위치하여 매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로서 삼한시대 부터 많은 전쟁을 치러내고 이곳 장성과 호남지역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입암산성은 쉽게 만날 수 없고 탐방로를 따라 1시간 30분 정도 걸어올라가야 합니다. 산성을 걸어올라 제일 처음 만나는 남문이 입암산성의 정문입니다. 현재에도 그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문을 따라 한바퀴 도는 산성은 그 길이가 약 5.2km로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대규모의 산성입니다. 성곽의 높이는 짧게는 1m에서 높게는 3.5m로 군사적요새로 지어져 있는데요 남문을 지나 성안에는 절과 관아터가 남아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북장대라고 되어있는데 장대라 하면 흔히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져서 유사시에 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장대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 북장대지에는 전체적인 군사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시면 되구요 현재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장대 중에 현재에도 가볼수 있는 곳이 바로 입암장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행에서 갓바위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가 해발은 높지 않지만 이곳에 서면 멀리 서해의 곱소, 변산이 보일정도로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가 장대로서 이 입암산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구요 북문에서 입암장대지로 가는 탐방로는 성곽을 직접 걸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다면 산행르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되어있고 계곡을 포함하여 쌓은 포곡식 산성입니다.

2.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입암산성을 조사하여 수습된 유물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와편, 분청사기 등 다양한 유물이 입암산성에서 출토되어 수습되어 있습니다.

3. 입암산성의 성곽시설물입니다.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남문이 정문이고 남문과 더불어 여러곳의 성문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숨어있는 암문이 있습니다. 암문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사용할려고 숨겨논 문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탐방로가 남문을 지나 북암문을 지나 입암으로 가는데 현재도 북암문 자리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보입니다. 그 외에 장대가 있는데 장대의 역할은 크게 군사지휘를 하는 곳과 먼곳을 전망하기 위한 역할이 있는데 북장대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지도에 주변이 넓은데 군사지휘 시설로서 군사훈련등을 하였고 입암장대는 현재의 갓바위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조망권이 좋아 적이 오는 것을 잘 감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서해까지 보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4. 현재 성곽시설물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남문과 북문의 현재모습이고 여기 구멍이 뚫린 이곳이 적이 오는 것을 보았던 총안이 남아있는 여장부분입니다.

5. 이런 입암산성에는 과연 몇 명이나 입암산성을 지키기 위해 살았을까요? 입암산성의 지도인데 추정을 해보면 성안에 많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군량창고는 정읍이나 광주, 순창, 태인 등 각 읍에서 보내온 군량미의 규모가 6만명의 군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옆에는 소금이나 된장창고가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장류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단기간이 아니라 몇 년이든 성안에서 농성하면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안에 있는 창고뿐만 아니라 성밖에도

창고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병기창고인 북창, 남쪽에는 군량창고인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창은 현재 전남대수련원 자리에 있었고 남창에서 유래한 이름 남창계곡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6. 입암산성의 인물들입니다. 입암산성은 삼한시대때부터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입암산성을 지켜온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 기록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켈 위에 보이는 고려시대 송군비장군, 조선시대 윤진장군, 전봉준장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송군비장군은 몽골의 6차 침입을 저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마르고 허약한 병사들만 순찰을 돌도록 하였고 방비없이 공격하여 대패하였다는 것은 몽골군 침입지도에도 자랑스럽게 입암산성이 남아있게 된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윤진장군 순의비가 있는 정유재란의 윤진장군이야기와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가 이곳 입암산성에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7. 입암산성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파란색 부분은 수중보 때문입니다. 성의 정문인 남문으로부터 올라오는 적으로부터 남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형식의 7개의 수중보를 쌓아놓고 유사시에는 터트려 공격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2 수중보가 잘 남아있는데 흙으로 다져져 있지만 관측이라하여 시루떡 쌓듯이 다 다져서 올린 기법을 현재도 볼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은 수중보와 더불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습지가 형성되었습니다.

8. 입암산성이 현대에 들어 더 이상 성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을사람들이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논이 되어 습지의 역할을 잃었다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다시 습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1980년대 모습입니다. 입암산성 내에 살던 사람들은 지리산 청학동처럼 경정유도라 하여 옛 종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사진이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돌학이나 절구 같은 것이 가면은 있습니다.

9. 입암산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입암산성습지입니다. 입암산성 습지는 원래 습지였는데 입암산성습지는 산꼭대기에 조성되어 있는 습지입니다. 장성지역이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일반 습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가을에 수량이 많은 반면 입암산성 습지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에도 많은 수량을 유지해 다른 곳과 다른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여름의 모습과 봄의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 보통 봄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곳은 눈이 많다보니 봄에도 촉촉한 봄을 볼수가 있습니다.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시면 하늘다람쥐, 황금박쥐로 잘 알려진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종이 있고, 식물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순천만에서 하면 갈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갈대는 물가에 자라는 식물이고 억새는 무등산 정산처럼 산정상에서 자라는데 입암산은 산 꼭대기에서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10. 지금까지 입암산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시면서 뒤에 있는 벽화를 보셨나요? 뒤쪽 벽

화는 입암산성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계를 그대로 표현해서 그린 벽화입니다. 여기 보이는 오색딱다구리나 도마뱀, 하늘다람쥐, 올빼미, 부엉이 등 다양한 식생을 보여줍니다.

11. 마지막으로 입암산성도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하면 앞에 보이는 포토존은 저희가 직접 만든것인데요 입암산성의 인물들을 표현해 어린친구들이 오면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입암산성은 장성에 속해있고 정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성을 찾아가면 남문에서부터 시작해 성내리, 성안에 있는 마을을 쪽 지나 북문을 거쳐 입암장대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입암장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망권이 좋으니 한번 올라보시구요 갯바위와 입암 같은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